

여수·순천·광양 '여수공항 활성화'·'의대 유치' 머리 맞댔다

'여수광 행정협의회' 35차 정기회의

여수·순천·광양 전남 동부권 3개 지자체가 여수공항을 남해안권 거점공항으로 육성하기 위한 활성화 대책과 전남 국립 의과대학 유치 공동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이 같은 논의는 여수·순천·광양시장이 지난 14일 한자리에 모인 '여수광 행정협의회' 35번째 정기회의에서 이뤄졌다.

이날 광양시청 대회의실에 모인 자치단체장과 실무진은 신규 안전 3건에 대한 심의·의결을 했다.

우선 협의회는 통합 환경관리 사업장 비산먼지 관리권을 지방으로 이양하자는 건의에 대해 원안 가결했다. 3개 지자체는 석유화학 제조업과 철강제조업이 집중된 지역 산업환경을 고려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환경오염사고와 민원이 발생할 때 신속하게 협정 대응을 하기 위해 통합 환경관리 사업장 비산먼지 관리권을 시·군·구로 이양하자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을 환경부에 공동 건의하기로 했다.

또 광역교통망 구축을 위한 자율주행버스 시범지구 지정은 실무부서 간 깊이 있는 논의를 거치기로 했다. 순천시가 지난해 6월 자율주행 셔틀 시범 운행 지구에 지정되면서 순천을 포함한 3개 지자체는 시범지구 운영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발고, 올해 하반기에는 시범지구 노선을 합의해 국토교통

아시아나항공 지원금 50% 증액...올해 1억5000만원
의대유치 60만 서명운동...광양항~울촌산단 도로 용역
환경부에 '비산먼지 관리권 지방 이양' 공동 건의키로
여수·광양 '순천만박람회' 입장권 2억2천만원 구매 약정

부에 신청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최근 항공편이 축소된 여수공항에 대해서는 코로나19 종식에 맞춰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대책을 모색했다.

지난해 9월 열린 여수광 행정협의회 회의에서는 여수공항 항공사업자(아시아나항공) 재정지원금을 50% 증액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지난 2016년 3개 지자체와 한국공항공사 등은 업무협약을 맺고 아시아나항공의 여수공항 운항 손실을 보상해준다는 명목으로 해마다 1억원을 지원해왔다. 여수시가 70%, 순천과 광양이 각각 20%, 10%를 부담하고 있다. 이번 정기회의에서는 전년 합의한 내용이 반영된 협약을 체결하면서 올해부터 내년까지 재정지원금을 연 1억5000만원으로 늘린다.

3개 지자체는 15개 연계·공동 협력사업의 추진 상황도 공유하고 점검했다.

지난 2021년부터 이어진 '전남 국립 의과대학 유치' 현안에 대해서는 올해 60만 서명운동을 지속해서 추진하며 분위기를 북돋을 예정이다.

광양항 서측 배후단지과 여수 울촌산단을 잇는 3.8km 연결도로는 지난해 용역비 3억원을 확보하고 올해 상반기 해양수산부 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다.

이외 협력사업에는 '광양만권 수소 공급 공용 시설기반 구축'과 '전남 동부권 다테헬기(응급의료용 헬기) 배치', '크루즈관광 활성화를 위한 공동 상품 개발·홍보', '전남 동부권 공공기관 2차 이전 유치 공동협력' 등이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여수시와 광양시가 각각 1억 1000만원, 1억원 상당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입장권을 사전 구매하는 약정식이 열리기도 했다. 2022년 여수광 행정협의회 재무 결산과 2023년 여수광 행정협의회 예산안 의결, 행정협의회 규약 변경 등도 진행했다.

협의회장인 정인화 광양시장은 "3개 시는 광양만권을 대표하는 하나의 공동체로 그동안 여러 역할을 해왔다"며 "3개 시의 공동번영과 발전을 위해 지역 현안과 과제를 서로 협력해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정기명(왼쪽) 여수시장과 정인화(오른쪽) 광양시장이 지난 14일 열린 여수광 행정협의회에서 노관규(가운데) 순천시장에게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입장권 사전 구매를 약속하고 있다. <광양시 제공>

록 슬기롭게 힘을 모으자"고 말했다.

1986년에 구성된 여수·순천·광양시 행정협의회 상·하반기로 나눠 회의를 열고 있다. 그동안 여수·별교 간 고속도로 건설 건의, 3시 광역교통 시스템 구축, 가야 문화권 조사 연구, 여수·순천 10·19

사건 특별법 제정 촉구, 코로나19 관련 감염병 공동 대응 업무 협약 등 성과를 거뒀다. 3개 자치단체장은 일 년에 한 번씩 번갈아 협의회장을 맡고 있으며, 내년 7월부터는 여수시장이 2년 임기로 협의회장을 맡는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여수항 국제크루즈선 3년만에 입항 재개

4월부터 3차례 1700여명 예정
"전 세계에 여수 알릴 좋은 기회"

코로나19로 중단됐던 여수항 국제크루즈선 입항이 3년3개월만에 재개된다.

여수시에 따르면 올해 여수항에는 국제크루즈선이 3회 입항하며 승객 909명, 선원 854명 등 모두 1765명이 여수와 순천 등지의 주요관광지를 둘러볼 것으로 전망된다.

4월 첫 입항하는 '실버 위스퍼'호는 2만8258t, 길이 186m 규모의 크루즈로 승객 382명, 승무원 295명 등 677여명을 태우고 여수항을 찾는다. 5월에 포넌트 선사 '레 소레일'호가, 10월에는 '실버 위스퍼'호가 재입항할 예정이다.

시는 내달 첫 입항에 따른 환영행사, 환전소, 관광 안내소 정비 등과 함께 맞춤형 관광코스 지원을 위한 관계 기관 협의 등 입항 준비에 힘을 쏟고 있다. 신영자 여수시 관광과장은 "크루즈 입항으로 여



코로나19 이전 여수신항에 정박한 프린세스 크루즈선. <여수시 제공>

수를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국내외 크루즈 관계자 팸투어 등을 통해 크루즈 선사 등과 지속적으로 교류하고, 국내외 마이스

산업 홍보 활동과도 연계해 국제크루즈 유치에 더욱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여수=김청화 기자·동부취재본부장 chkim@

광양시 '신산업 육성' 대대적 조직 개편

에너지산업과·청년일자리과·미래산업국 신설 등 6과 27팀 규모

광양시가 신산업 육성을 활성화하기 위해 대대적인 조직개편에 속도를 내고 있다.

광양시에 따르면 정인화 시장과 국·과·실장들은 최근 '광양시 조직진단 연구용역 2차 중간보고회'를 열고 조직개편안을 논의했다.

조직개편안의 핵심은 기존 5과 21팀 규모의 경제복지국을 6과 27팀 규모의 미래산업국으로 신설,

투자과 일자리, 청년, 에너지, 신산업 등의 분야가 한데 모일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민선 8기 핵심공약사업인 이차전지, 수소산업 등 신산업 육성을 활성화하기 위해 에너지산업과를 신설할 것으로 보인다.

총무국 소속이던 정보통신과는 데이터산업·스마트도시 등의 업무를 더해 디지털산업과로 변경·

이관된다. 전략정책실이 맡았던 인구정책, 청년정책 등의 업무는 신설 예정인 청년일자리과에서 맡게 된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미래산업국 신설 외에도 정시장의 공약 중 하나인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플랫폼 구축을 위한 감동시대추진단 신설도 논의됐다.

감동시대추진단은 시장 직속실로 분류될 것으로 예상되며 광양시는 이와 관련해 6급 공직자를 단장으로 두고 TF팀처럼 운영할 방침이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노고단 통행 제한 전면 해제

구례군, 5월 해빙기까지 수시 점검

구례군은 군도 12호선인 노고단 일주 도로의 통행 제한을 전면 해제한다고 15일 밝혔다.

겨울철 도로 결빙에 따른 통행 제한은 지난해 12월 1일부터 전면 또는 부분 시행해왔다.

군도 12호선인 노고단 일주 도로는 겨울철 도로 결빙에 따른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천은사 주차장 입구부터 달궁삼거리 14km 구간에 대해 전면 통행과 부분 통행이 매년 적용되고 있다.

당초 이달 31일까지 통행을 제한할 예정이었지만, 날씨가 따뜻해지고 봄철 관광 수요가 늘면서 해제 시점을 앞당겼다.

구례군은 오는 5월 해빙기까지 수시 점검을 하며 만일의 사고를 예방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구례군 관계자는 "도로가 높은 지대에 있으므로 이상 기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이용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구례=이진택 기자 lit@kwangju.co.kr

나무 수벽 만들어 사과 수확량 늘리고 노동력 줄이고

곡성군 '다축과원 재배기술' 적극 보급

곡성군이 사과 수확량을 늘리고 노동력을 절감할 수 있는 '다축과원 재배기술'을 적극적으로 보급하기로 했다.

곡성군은 올해 농촌진흥청 국비 사업으로 1.1ha 규모 '미래형 사과 다축과원 조성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곡성군은 자체 예산 1억7000만원을 투입해 올해 4ha 규모 사과 다축과원을 추가 조성할 예정이다.

'다축과원 재배기술' 확대 도입은 농촌 고령화와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 사과 농업인의 경영비가 지속해서 증가하는 현실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다축과원 재배는 나무 수벽을 만들어 수형(樹形)을 단순화하는 기술이다.

기존 재배방식은 '주간형' (세장방추형)으로 수폭이 넓고, 수고가 높아 전정, 적과, 적엽 등 농작업에 상대적으로 많은 노동력이 필요했다.

농업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새로운 재배 방법인 '다축재배 기술'을 적용하려면 농업인 교육과 훈련이 필요하다.

곡성군은 지난달부터 다축재배에 관심 있는 농가를 대상으로 이론 교육과 선도 농가 견학을 진행했다.

군은 앞으로 사과 다축재배 기술이 정착할 수 있도록 교육과 현장 상담을 지속해서 벌일 계획이다. 또 농업인 의견을 듣고 성과도 분석해 확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상철 곡성군수는 "노동력 부족, 인건비 상승 등으로 곡성 사과 재배면적을 줄이는 등 관련 산업이 위축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생산력 절감형 다축과원과 재배기술인 다축재배 기술을 보급하고 관련 기반시설 지원을 통해 우리 군 사과 산업이 지속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곡성=박종태 기자 pjt@kwangju.co.kr



순천시 동천수역에 5만 마리 방류... "생태계 건강성 입증"

순천시는 인안초등학교 학생, 시민들과 지난 13일 동천수역에서 국가 기후변화지정종인 어린 연어 5만 마리를 방류했다. <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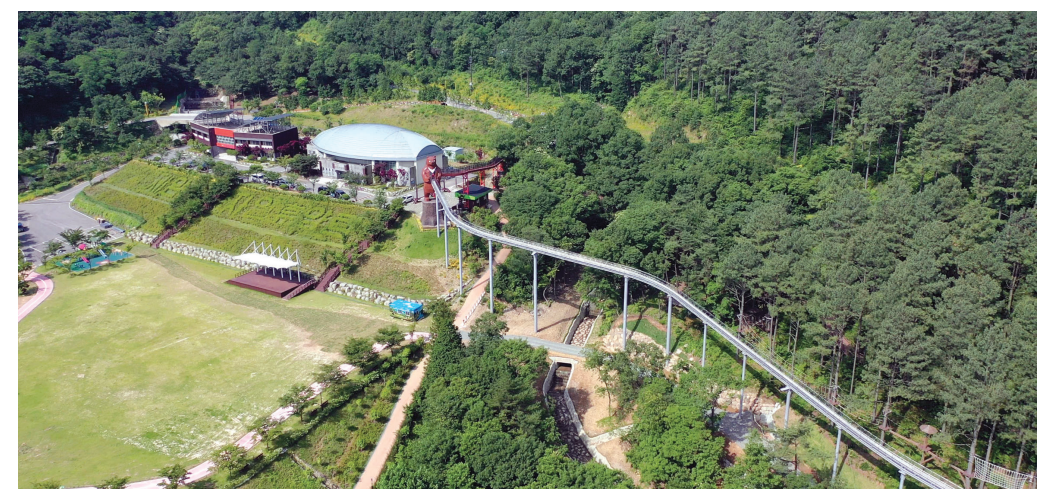
동천에 방류한 연어는 전남도 해양수산과학원 섬진강어류생태관에서 부화한 어린 개체이며, 방류생물 질병 검사를 통과했다.

시는 지난 2017년 3월 시범적으로 동천에 어린 연어 2만 마리를 방류했다. 2020년 10월에는

순천만과 동천수역(용담교 아래)에서 회귀한 연어 70여 마리를 확인하기도 했다.

이후 2021년부터는 해마다 5만 마리의 어린 연어를 풀어주고 있다.

순천시 관계자는 "연어의 회귀는 동천 생태계의 건강성이 입증된 것"이라며 "국내 최초 3대 습지 생태축을 완성한 순천시에는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말했다. /순천=김은중 기자 ejkim@



보성 제암산휴양림 '전남 유니크베뉴' 선정

대강당·숙박시설·야영장 등 호평...중·소규모 마이스 행사 가능

보성 제암산자연휴양림(사진)이 전남도가 지정한 유니크 베뉴에 선정됐다.

유니크 베뉴는 도시의 고유한 컨셉이나 그 곳에서 느낄 수 있는 독특한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장소로, 전문시설이 아니라도 마이스(MICE) 등의 행사 개최가 가능한 시설 또는 장소를 말한다.

보성군은 유니크 베뉴 선정으로 마이스 기관·단체의 중·소규모 회의 때 전남도로부터 인센티브를 지원받는다.

보성군 관계자는 "전남도가 올해 처음으로 지정하는 유니크 베뉴에 선정된 만큼 제암산자연휴양림의 강점을 살려 중·소규모 마이스 산업 유치에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보성=김용백 기자 kyb@kwangju.co.kr

제암산자연휴양림은 무대와 빔프로젝터 등을 갖춘 대강당과 세미나실, 무장에 테크길, 펌백 나무를 이용한 숙박시설, 야영장(51곳) 등을 갖추고 있어 높은 점수를 얻었다고 보성군은 설명했다.

최대 3000명을 수용할 수 있다는 점과 에코어드벤처·짚라인·곰돌이 등의 체험 프로그램, 잔디광장·족구장·4년 연속 웰니스 관광지로 선정된 전남환경정질원예방관리센터가 있다는 점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